



'황혼 로맨스' 이렇게 설레도 되나요



전설은 영원하다

'50주년' 조용필 불후의 명곡 출연

8년 기다림에 시청률 13.6% 기록



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분 방송한 KBS 2 TV 예능 '불후의 명곡' 시청률은 9.5%~13.6%로 집계됐다. 지난해 방송이 기록한 6.5%~8.1%보다 크게 오른 수치다.

'불후의 명곡'은 2011년 첫 방송 후부터 오랫동안 조용필(사진) 섭외에 공을 들여왔다. MC 신동엽 역시 꼭 모시고 싶은 '전설'로 늘 조용필을 꼽았다. 결국, 조용필은 데뷔 50주년을 맞아 출연을 결심했다.

MC들과 출연진, 방청객의 큰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선 조용필은 "KBS에 온 지 20년 정도 됐다"며 "여러분을 보니 그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다. 몇십 년 어러지는 느낌이라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또 "40주년 때는 한 5년 후면 (가수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50년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든 분이 절 사랑해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쉽게 만나기 어려운 가왕의 등장에 김중서, 김경호, 박정현 등 그동안 내로라 하는 무대에 수없이 섰던 틈가수들도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해 조용필은 "3주 연속 (특집 방송) 하는데 무대가 엄청나게 좋았다"며 "음악이란 건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에 자유롭게 하는 걸 잘 좋아한다. 이렇게 여러 가수를 한꺼번에 만난다는 게 힘든 일인데 많이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대부분 출연진은 평소와 달리 애드리브보다는 원곡의 감성을 고스란히 전달하려 애썼다. '전설'은 여유로우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후배들의 무대를 감상했다. 관객들은 출연진뿐만 아니라 전설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며 호응했다. '영원한 오빠' 같은 수제 플래카드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총 3부 중 전날 1부에서는 박정현이 '창방의 여자'를, 김경호가 '아시아의 불꽃'을, 환희가 '모나리자'를, 김소현·손준호 부부가 '미지의 세계', 김태우가 '친구'를 선보였으며 1부 우승 트로피는 405점을 받아 4연승 한 김경호에게 돌아갔다.

조용필은 모든 후배에게 "정말 잘했다", "색달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일어서서 손뼉을 치기도 했다. 그는 후배들이 선택한 곡의 탄생 배경과 방송보다 공연에 집중하게 된 계기 등 뒷이야기도 들려줬다.

2부는 오는 29일, 3부는 5월 5일에 방송한다. 한편, '불후의 명곡'과 동시간대 방송한 MBC TV '무한도전-13년의 토요일'은 3.9%~5.2%의 시청률을 보였다. 코멘터리 형식의 '13년의 토요일' 3부를 끝으로 '무한도전'은 완전히 종영했다. SBS TV '백년송남'은 4.5%~7.4%였다.

이보다 늦은 밤 시간대 방송한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은 6.7%~8.7%, KBS 2TV '베를린'은 3.8%, '1%의 우정'은 2.4%, SBS TV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6.2%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황혼 로맨스에도 이렇게 설레 수 있다는 게 놀랍지만 다른 이야기들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게 문제다.

KBS 2TV 주말극 '같이 살래요'가 총 50회 중 10회까지 전개됐으나 유동근(사진 왼쪽)·장미희 커플 외 스토리는 아직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서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전작인 '황금빛 내 인생'에 크게 못 미친다.

◇ 50대 후반 '밀당'도 설레게 하는 유동근과 장미희 '같이 살래요'가 그레도 시청률 30%(닐슨코리아)를 코앞에 돌 만큼 호응을 얻는 데는 효섭(유동근 분)과 미연(장미희)의 러브스토리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주말 가족극에서 노년 로맨스는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 양념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효섭과 미연이 '메인'이다.

36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아역 장성범과 정채연이 연기하는 과거의 옛된 모습은 아니지만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다. 장미희가 연기하는 미연은 예전처럼 적극적이고, 통통 튀는 매력도 여전하다. 유동근의 효섭도 장성현 네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인자함이 더해졌지만 과거의 순정도 그대로 지녔다.

예순이 넘는 유동근과 장미희는 중간중간 20대인 장성범과 정채연의 모습이 비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로맨스에 흡입 녹아든 모습이다. 특히 첫째 딸 결혼 문제로 상처받은 효섭에게 낭랑한 목소리로 "같이 놀자"고 위로하는 미연은, 장미희가 아니고서는 연기할 수 없다는 평을 받는다.

아버지가 연애할까 걱정하는 효섭의 딸들 앞에서 "내가 접수할게, 네 아빠"라고 선전포고하거나, 효섭의 육탄방에서 동침 아닌 동침을 하고도 전혀 거리낌 없는 미연의 모습은 드라마의 백미다.

장미희·유동근 러브스토리 큰 호응

20·30대 커플은 '셀렘지수' 부족

시청률·화제성 전작에 크게 못 미쳐

30~40년 연기 생활을 했지만 이번에 커플로 처음 만났다는 유동근과 장미희의 호흡을 보는 것도 큰 재미다.

드라마 연출을 맡은 윤창범 PD는 21일 "두 분이 서로 배려를 많이 한다. 기존 연기력에 조화까지 더해지면서 속칭 '케미'(케미스트리, 공합)란 게 생겨났다"며 "유동근 씨는 역시 아버지 역할이 자연스럽고, 장미희 씨는 새로운 발달함까지 보여주면서 촬영장 분위기도 한층 편해졌다. 그러니 젊은 배우들도 잘 따라온다"고 말했다.

윤 PD는 이 커플의 인기 비결에 대해서는 "극중 효섭과 미연은 50대 후반인데, 요새는 젊은 나이"라며 "황혼 멜로라곤 심각하기보다는 몸도 마음도 젊은 두 사람의 경쾌하고 밝은 로맨스에 집중하다 보니 호응을 얻는 것 같다"고 답했다.

황혼 로맨스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가운데 중장년층 시청자 공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젊은 시청자들까지 설레게 하는 두 사람 관계가 결실을 거둬주 주목된다.

◇ 뻘히 보이는 스토리와 '셀렘지수' 낮은 커플들 황혼 로맨스가 새로운 시각에서 주목받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가 고루 눈길을 끌어야 하는 것도 가족극 역할이라는 점에서 '같이 살래요'는 조금 어렵다.

그나마 이야기가 좀 진전된 커플은 첫째 딸 선하(박

선영)과 6살 연하인 직장 후배 경수(강성욱)다. 하지만 최근 연상녀·연하남 이야기가 매체에서 자주 다뤄지다 보니 더는 새롭게 와 닿지 않는다. 선하의 캐릭터 역시 기존 주말극에서 많이 본 장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품 포스터에서도 보이듯 '메인 커플'인 은태(이상우)와 유하(한지혜) 스토리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최근 유하의 딸 은수(서연우)와 은태 열액형이 모두 희귀한 것으로 비친 가운데, 시청자들은 결국 은수가 은태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친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매번 몰아치는 반전을 내뿜던 전작 '황금빛 내 인생'에 익숙해진 시청자들로서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출이다.

주말극의 '꽃'으로 불리는 '막내 커플' 이야기 역시 아직 한참 무르익어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지적에 윤 PD는 "극을 순서대로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초반 효섭-미연 이야기에 힘이 실린 것은 처음부터 의도한 기획"이라며 "앞으로 효섭이 미연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것에서 볼 수 있듯 미연이란 캐릭터가 가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구성원들과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사는 재미만 걸 깨닫는 에피소드들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반부터는 작시 세대들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진행된다. 각 계층을 대변하는 커플이 있는데, 특히 젊은 친구들은 독립을 위해 사랑을 잠시 외면하지만 결국 삶도 사랑도 잡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부분이 다양한 시청자 층의 공감을 얻을 것이다. 아직 초반인 만큼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1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30 930 MBC 뉴스 45 이상한 나라의 머니 스페셜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추준 뉴스	50 위대한 유혹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UHD 숨터(재)	00 우리가 만난 기적(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위대한 유혹자(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넷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제23회 KBS 119상 시상식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10 좌충우돌 만국유랑기	00 뉴스브리핑
3	00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아카데미	00 자동차부책상 위기 2 30 TV 유치원	05 사이닝스타 35 뽀뽀모두야 놀자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5 경제매거진 M 스페셜 55 뉴스콘서트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55 전생애 헬수들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면이야기(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인형의 집	35 특집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색션 TV 연예통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10	00 가요무대 울주공연	00 우리가 만난 기적	00 위대한 유혹자	00 키스 먼저 할까요?
11	30 KBS 뉴스 40 월요기획	10 안녕하세요	10 MBC 스페셜 (로그로 세월호 접수자들의 일기)	1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1~2부
12	30 국제공동제작 아시아피치 (영화, 여성, 불후 헬멧 -빙글라데시)	35 비바 K리그	15 스포츠 다이아리 30 가요베스트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자동차 횡단 7500km -1부 동부 사탕이 사는 법)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플라워링 하트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월드2 08:00 덩동명 유치원 1~2 08:30 허름선생이 과학쇼 08:45 방구대장 뽀뽀이 09:00 몬카토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강형욱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토마토소스와 토마토 우삼겹 된장찌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3:00 다큐 오늘 (낙타의 소금길)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4:30 똑딱맨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15 파파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방랑고 나라, 코코콩 16:15 올감한 소망자 레이 16:30 방구대장 뽀뽀이(재) 16:45 덩동명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마사와 곰 17:45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4 19:00 스파이더맨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우리가 몰랐던 이란 1부 마술 같은 시간여행, 마술레) 21:30 한국기행 (봄, 비비다 1부 달콤 쌉싸름하니 봄)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메디컬 다큐-7요일 23:55 엄마를 찾지마 24:45 지식채널e 24:50 세계의 드라마 (포 더 피플 3부)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3일(음 3월 8일 乙酉)

子	36년생 내부적인 면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48년생 작은 일에 매달리다 보면 큰일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60년생 징후를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72년생 투명하고 정확해야겠다. 84년생 남담이 진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을 아껴라. 행운의 숫자 : 59, 15	午	42년생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54년생 예감과 실제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라. 66년생 상호 관련될 수밖에 없다. 78년생 끝나는 마당에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다. 90년생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가지고 괜히 손대어서 역효과를 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1, 01
丑	37년생 지금 즉시 실행하라. 49년생 잔물결이 행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61년생 결정적인 신호는 느낌으로써 올 것이다. 73년생 마음은 기다리고 천천히 행하는 것이 실속 있다. 85년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계제이다. 행운의 숫자 : 33, 17	未	43년생 명멸한 조처가 취약점을 보완하게 된다. 55년생 부분적인 것이 큰 국면을 가려서서 아니 된다. 67년생 수용하는 편이 낫다. 79년생 순간적인 격정을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91년생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1, 21
寅	38년생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50년생 목은 것을 털어 버리고 신선함을 시도하라. 62년생 초여름의 소나기와 같은 기복이 보인다. 74년생 상대의 입장에 고려해 주는 것이 낫다. 86년생 겸손함과 검소함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행운의 숫자 : 12, 91	申	44년생 시작만 해 놓으면 절반은 이론 셈이다. 56년생 현실적이어야 한다. 68년생 치밀한 분석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80년생 오해의 소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92년생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노파심은 거두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4, 98
卯	39년생 의도와 용기는 가상하나 반응이 별로다. 51년생 정성을 들이면 얻는 바가 많다. 63년생 기본적인 것에 충실 하는 것이 실속 있다. 75년생 초기 계획과는 약간 다르게 이행되리라. 87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01, 89	酉	45년생 방법을 신중 써야만 한다. 57년생 근원적인 부분부터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 69년생 실제적인 내용이 충만해야 한다. 81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해결되리라. 93년생 쌓아온 공로가 자신의 입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행운의 숫자 : 34, 78
辰	40년생 시간을 잘 활용하라. 52년생 단독으로는 힘드니 함께 행하라. 64년생 안온이 떠오니 신중히 처신해야만 할 것이니라. 76년생 명분에 이끌리다보면 실속이 없어지는 법이다. 88년생 과거의 인연이 좋은 기회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3, 38	戌	34년생 새로운 인연은 길사를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리라. 46년생 조안을 구한 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형상이니라. 70년생 여건이 풀린다. 82년생 운로가 순조로우니 원한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 행운의 숫자 : 30, 66
巳	41년생 제3자의 시각이 더 정확할 수 있다. 53년생 갖출 것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터질 것이다. 65년생 잠자코 있는 편이 낫다. 77년생 찾으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눈에 띄게 된다. 89년생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55	亥	35년생 꼼꼼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쉽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47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9년생 굽은 것은 펴자. 71년생 다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83년생 가닥이 잡히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13, 6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